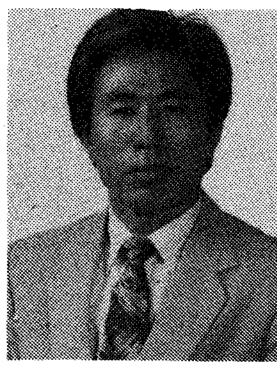
도교의 無 "무한 사상"

無字碑의 절대권위

교수기고…조선조 왕릉의 신도비와 백비의 수수께끼



최 경 석
〈문리대 교수·물리학〉

1. 조선왕조 왕릉에서 신도비가 사라지다

세종대왕은 소헌왕후가 세상을 뜨자 부왕 태종의 능인 헌능(지금의 헌인능)옆에 묘자리를 잡는다. 그 묘자리가 불길하다는 말을 듣고 세종대왕은 그것을 웃어 넘기면서 음양가의 화복의 이야기는 근심할바 아니고 부왕의 곁보다 더 좋은 묘자리가 어디 있겠는가고 끝내 그 영능을 조성시켰다. 1450년, 세종대왕은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54세로 세상을 떠난다. 대왕은 자기 유지대로 역시 영릉에 안장되었다. 왕조실록에 있는 말이다.

그뒤 1452년 2월, 세종의 신도비가 완성되고, 비가 커서 자나깨나 무사히 세워지기만을 기원하던 문종은 그동안 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한 신하들을 치하하고 포상한다.

그런데 조선왕조에서는 이때의 이 세종대왕 신도비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후로는 왕의 신도비가 세워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 대사전의 신도비 항을 보면 문종이 법으로 왕의 신도비 세우는 것을 금했다고 되어 있는데, 문종실록·단종실록·세종실록·예종실록까지 뒤져도 그러한 대목이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전후사정에서 왕의 신도비가 없어지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역사가의 도움을 받으며 찾아낸것이 서거정(徐居正)의 "筆苑雜記"이다.

이것을 보면 문종의 비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조정에 그 비의 조성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왕의 사적은 국사에 소상히 적혀있는데 사대부들과 같이 그 업적을 다시 적어 신도비를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신도비를 세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왕의 신도비를 없앤다는것은 왕가의 법도에서는 적지 않은 사건인데, 그것이 왕조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야사에 기록된대로라면, 조정의 여론으로 쉽게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왕가의 법도라는 것은 조선왕가 홀로의 법도가 아니라 황제의 법도와도 상응하게끔 만들어진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더욱더 무엇인가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을 것같은 분위기를 말하고 있다. 이조 왕릉의 신도비는 이와 같이 해서 슬그머니 문종때부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서거정은 세종2년(1420)에 태어나 성종19년(1488)에 죽을 때까지 왕조 6대에 걸쳐 조정에 봉사한 유명한 학자다. 그 서거정의 이야기를 더 살펴본다. 예종원년 즉 1469년 3월에 세종능인 영능이 여주로 이장되는데 그때 똑같은 이유에서 비를 묻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이조 5백년 역사에서, 왕의 신도비로서는 마지막 신도비가 되었던 세종의 신도비는 땅에 묻히게 된다. 그 신도비는 1974년 대모산(서울 강남구 개포동 남쪽의산) 남쪽 기슭의 원래의 영능자리에서 발굴되어 청량리 홍릉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의 입구 언덕길에 다시 세워졌다. 비신만 있는채로 세워져있는 그 비의 사진이 사진1이다.

2. 황제의 신도비

1401년 명나라 이야기다. 북경지방의 수비를 맡고 있던 연왕(燕王)은 병을 이르켜 조카 건문황제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남하해서 남경을 친다. 2년만에 연왕이 남경성에 돌입하는 날 건문황제는 불속에 뛰어들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03년 연왕은 남경에서 즉위하고 성조가 되었고 연호를 영락으로 선포한다. 성조는 백만명이상을 징발하여 북경에 새 수도 건설을 착공한다. 1421년 성조는 북경으로 천도하고 1424년 세상을 떠난다.

성조는 북경교외 서북방에 있는 명 13능 이라는 곳에 묻인다.

그의 능을 장능이라고 하는데 그후 계속해서 황제들이 같은곳에 묻이면서 명 13능은 13개의 황제능이 모이게 되는 능묘구역이 되었다. 거기에 있는 13개의 황제능중에서는 성조의 능이 제일크다. 장능입구에는 10m나 되는 돌비석으로된 신도비가 있고, 그비에는 성조의 업적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명 13능의 황제의 신도비는 성조이후로는 모두가 무자비로 세워져있다. 비면에 전혀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중의 하나, 임진왜란때 조선에 파병한 신종의 신도비를 사진 2에 보였다.

무자비의 뜻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있다. 물론 그들은 모두가 어디엔가 고서에 기록되 있는 이야기들이다. 크나큰 황제의 공덕을 어찌 붓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무자비가 되었다고도 한다. 1년도 안되서 죽은 황제도 있고, 20년이상을 정청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황제가 있는데 무슨 공덕이 붓으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크다는 말인지. 또 다른 말도 있다. 황제보고 선 황제의 비문을 써달라고 청하니, 불로장생만을 꿈꾸고 주색에만 빠져있는 황제는, 죽는다 죽었다가 실감이나지 않아 비문을 끝내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 황제의 신도비는 글씨 없이 세워졌고 다음 황제들은 앞의 황제의 비가 무자비인데 자기만 글씨를 새기게 할수없어 그들도 똑같이 무자비를 세우게 되었다고… 황제를 무슨 희극의 황제놀이의 주인공같이 묘사한 내용이다.

나는 작년 감악산의 고비와 진천의 백비를 고찰하고 그것을 "백비의 수수께끼"로 정리한 발표문에서, 무자비의 백면의 공백은 도교의 "無"의 표현이고, 측천무후에서 시작된 무자비의 "無"가 가르키는 "무한사상"이 명13능의 황제의 무자비 신도비에서 자비가 되면서 황제의 신도비는 새로운 뜻을 갖게 된다. 글자하나 없이 "無"를 표방한 황제의 신도비는 공덕을 찬양하는 "공덕비"에서 "이 이상 없다"는 "절대권위의 상징비"가 되었다. 제왕학의 "새章"이 열린 것이다. 요즘말로 쉽게 풀이하면, 이제 제왕들 사이에 도는 "새 유행"에서는 제왕의 신도비를 글씨를 가지고 장식한다는 것은 원색의 치마저고리로 휘감은 "촌닭"의 꼴이 된다는 말이다.

일반대중, 즉 백성들에게 중국 황제의 나라는 머나먼 나라요, 황제라는 말 자체가 피부에 닿지 않는 건성으로 울리는 낱말밖에는 안된다.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다. 왕이 죽으면 조정은 즉시로 황제에게 왕의 부보를 통보하고 시호를 청하고, 황제는 왕세자를 새로 조선왕에 책봉하는 칙서를 내린다. 왕비를 택할때도 왕비의 책봉을 받아야하고 왕세자도 황제가 책봉한다. 즉, 왕은 황제의 바로 턱밑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황제의 법도 변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왕의 법도의 변경으로 반영될수 밖에 없는것이다.

명나라에서는 성조때까지 황제의 신도비에 글씨가 있고 그 후부터 황제의 신도비가 무자비가 된다. 조선왕조에서는 명의 성조때 즉위한 세종까지 글자있는 왕의 신도비가 세워졌고, 그후 문종때부터는 왕의 신도비가 없어진다. 황제의 신도비가 무자비인데, 왕으로서는 무자비를 세울 수 없어 신도비를 아주 없앤다고 공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왕조실록에 전혀 이 내용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사정을 말하고 있다. 한편 왕의 신도비를 세운다 안 세운다 하는 것은 지엄한 왕가의 법도의 문제요, 제왕학의 원초적 문제이므로 신하로서는 함부로 입에 담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왕은, 그럴듯한 구실이 될 수 있는 사정을 만들어 될 수 있는대로 "소리없이" 신도비를 없애야 했을 것이다. 그때의 조정의 분위기를 전하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서거정의 말이다.

4. 세종대왕 신도비의 비밀

왕조실록을 보면, 1468년, 즉 예종 즉위년 11월 29일 예종은 영능 천능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신숙주, 한명회등에게 명한다. 이와같이 시작된 천능공사는 다음해 3월초에 끝난다. 왕이 왜 천능을 검토시켜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한편, 천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2일 후인 12월 1일에는 이미 풍수지리서를 가지고 예종은 신하들과 영능의 능자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천능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할 때 이미 예종에게는 천능의 의지와 이유가 확고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천능과정에서, 1469년 1월 29일, 예종은 비와 기타 잡상들은 "옮겨 설치하지 말라"고 명한다. 이번에도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해서 세종의 신도비는 땅에 묻혔다. 위의 내용이 천능의 시발과 그 과정에서 신도비가 매장되는 내용에 관한 왕조 실록에 있는 기록의 전부다.

위의 사정을 좀더 검토해 본다. 천능을 검토하라는 왕의 명을 받고 한명회는 영능조성당시의 기록이 있으므로 우선 그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그와같이 해서, 예를들면, 그 묘자리가 원래 불길한 곳이었는데… 등등의 이유로 천능의 정당성이 결정되고, 일반에게는 어느 내용으로 알려져 내려왔다 해도, 그것은 반드시 천능을 발의한 왕의 의중의 뜻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없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왕의 천능발의의 이유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신도비가 땅에 묻히는데, 천능할 때는 일절의 석조물을 땅에 묻고 가는 법이라든가 하는 일반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내용의 근거도 전혀없다. 서거정은 세종의 신도비가 세워지는 1451년에는 집현전 부교리로 있었고, 1469년 3월 세종의 능이 여주로 이장될때는 한성부윤으로 있으면서, 그 천능공사에 천능도감 제조(堤調)로 참여한다. 그 서거정의 이야기로는 "불필요"해서 묻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조정에 떠도는 분위기 즉 당시의 일반인들이 납득하고 있는 신도비 매립의 사유는 될수 있어도 그것이 꼭 천능을 발의한 왕의 의중의 뜻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는 여기서도 말할 수 없다.

◇…명 13능에 있는 신종의 신도비, 임진왜란때 조선에 파병한 신종의 신도비는 명 13능에 있는 신도비 중 가장 뛰어난 솜씨로 조각되어 있는 무자비이다

◇…홍릉의 세종대왕 기념관 언덕길에 있는 세종대왕의 신도비, 비신만 세워져 있다 〈사진 1〉

그런데, 묻었다는 것은 "없는것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면, 조선왕조에서 왕의 신도비가 없어지게 된것은 문종때부터가 아니라 세종때부터 시작된 것이 된다.

그러고 보면, 명나라에서 황제의 신도비가 무자비가 되자 조선왕조에서는 곧 왕의 신도비가 없어진것이 된다

그리고 보면, 세종대왕의 신도비가 새롭게 부각된다. 부친옆에 묻히고 싶다고 생전에 친히 조성한 능침에 안장된 대왕의 간절한 유지를 어기면서까지 장엄한 대왕의 왕릉을 파헤쳐 "멀리"여주로 이장한 이유를 알수 있을것만 같다. 왕자에게는 왕자의 길이 있다. 그들이 신봉하는 제왕학에는 후회라든가 조상의 묘자리 탓이라든가 하는것은 있을수가 없다. 그러므로서, 세종대왕의 능이 이장되었다는 것은, 이장됨으로서 세종대왕 자신의 위덕이 더 커지는 경우로만 정당화 될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황제의 신도비는 무한권위를 표방하는 "無"의 상징비가 되었다. 그리고 글씨를 가지고 여하히 찬양해 보았자 "한정된"인간사의 한정된 찬양비(공덕비)밖에 될수 없는 글씨있는 신도비는 사대부들의 허세비정도로 전락한 것이다. "왕의 업적은 국사에 기록되어 있어", 대범하게 세 왕(문종, 단종, 세조)의 신도비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뚝 서있는 대왕의 글자있는 신도비는 크면 클수록 오직 대왕의 위덕을 짓누르는 역할밖에는 안한다. 그러한 사정에서, 세종의 신도비를 자연스럽게 파기하기 위해서, 다시말하면, 조선왕조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장엄한 세종의 신도비를 자연스럽게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서", 세종의 영능은 멀리 억지 이장된 것이다. 지나친 추정이 될 것인가?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서 왕능이 이장된 것은 세종의 경우 밖에는 없다.

5. 신도비와 백비의 수수께끼 II

1989년 12월2일, 감악산 산상의 백비앞에 선것이 내가 백미를 조사하는 시발이 되었다. 그후 백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설인귀, 측천무후, 김유신등 역사의 거인들이 백비내지는 무자비 선상에 찬란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800년이 지나서, 동양사의 무대가 대명제국으로 넘어 오면서, 대명제국의 기라성같은 11명의 황제가 백비선상에 도열하고 있는것도 보았다. (이상 1990년 3월 26일부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제950호 "백비의 수수께끼—최경석"참조).

그런데 이번에는, 조선 500년 27대 왕조에서 역대의 왕들이 떼지어 줄줄이 무자비물결에 올라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무자비는 그들의 왕능에서 영영 신도비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세종대왕을 위시해서 24명의 왕들의 왕능에서 말이다.

황제의 무자비 '無'에서 '공덕비' '절대권위비'로
위덕 짓누르는 세종 신도비 자연스레 땅에 묻혀

절대권위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3. 황제와 왕

원래 신도비는 말 그대로 혼백이 들락거리는 길목에 세워지는 공덕비의 성격을 띠는 비석이다. 성조의 장능의 신도비만 해도 3천자에 달하는 비문으로 덮혀져 있다. 그런데 황제의 신도비가 무

그런데 황제의 능에 "이 사람은 無요"라는 무자비의 신도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왕도 "나도 無요"라고 무자비를 세울법도 한데 이경우만은 그럴수가 없다. 황제의 무자비가 표방하는 "無"의 뜻은 왕이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너무나도 컸던 것이다.

무자비는 그 자체가 황제라는 뜻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큰無요"라고 아주 없앤는지는 몰라도 바로 이 무렵부터 조선조의 왕능에는 왕의 신도비 세우는 것이 없어진다. 명나라와 조선왕조의 이 무렵의 연대 대조를 해보인것이 그림1이다.

야 담 세종대왕능 이장내력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지 얼마후 세조대왕의 꿈에 대왕을 뵙고 친근히 말씀을 받들어 즐거움이 생시와 같은지라 세조께서 추모하는 정이 더욱 간절하여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위하여 헌릉 옆에다 절을 세워 명복을 비는 장소로 하고자 하셨다.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멀리 나무를 찍어 강 언덕에 쌓았는데 하루 저녁에 비가 내리어 다 떠내려갔다.

또 그 이듬해 세조께서 돌아가셨으며 국가에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아 능 옆에 절을 경영할 겨를이 없었다.

예종때 이르러 상지관 안효례가 아뢰기를 "헌릉 좌국의 풍수가 옛법에 맞지 아니함에 있으니 마땅히 능을 다시 세워 큰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예종께서 제신들을 나누어 여러 곳으로 파견하여 능 자리를 찾게 하였는데 이중 한 일행인 노사신과 상지관 안효례가 여주 강금산을 거쳐 북성산에 이르러 사면을 바라보다가 한 곳 산 기슭에 정기가 어리어있음을 발견하고 산을 내려와 그 곳을 찾아드니 한 아름씩 자란 노송들이 울창해 숲은 마치 꾀꼬리가 둥지를 품고 있는 양 하였다.

이곳에서 산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먹구름이 몰려와 때아닌 비가 내려 일행들은 당황하여 비를 피하려고 사방을 둘러보니 저 만치 숲사이로 묘막이 눈에 띄었다.

제신들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묘막 처마 아래로 몰려가 서성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줄기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내려 비치고 있었다.

제신들은 한줄기 서기가 비친 나즈막한 등성이로 급히 올라 사면지세를 살펴보니 저절로 탄성이 쏟아져 나올 뛰어난 명당자리였다.

그러나 이 곳에는 이미 전날 좌상을 지낸 이인손과 이계전의 분묘가 있었다.

상지관 일행은 이 사실을 예종께 아뢰었고 예종 또한 마음이 쏠리어 그 당시 평안도 관찰사로 있던 이인손의 맏아들 이극배를 몇 차례 조정에 불러들여 그 자리를 비워 달라는 말은 못하고 은근히 당신 마음의 뜻을 비치셨다.

이에 이극배도 아우들과 상의한 끝에 자리를 내놓았고 예종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장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인손 후손들이 이장을 하기 위해 산역을 하게 되었는데 "예사로운 분영이 아니니 성분입비하지 말라"던 지관의 말을 뒤늦게 생각하며 산소를 해치고 유해를 들어내니 그 밑에서 뜻하지 않은 글 한 귀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연을 날리어 날아가 떨어진 자리에 이 묘를 옮겨 모셔라" 는 것이었다.

모두가 신기한지라 바로 그대로 하였다.

연이 날아가 떨어진 곳은 오늘날 연주리라 하는데 바로 북성산 서북쪽 들녘과 맞닿는 아늑한 산 기슭이었다.

이후 이극배 자손 또한 번창하였으며 오늘에까지 제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여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이곳에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출처:문공부 자료〉

朔風 무감각한 껍데기에 둘러싸인 정치권

5월 어느 날의 일이다.

종로통에서 노점을 벌이며 생계를 잇는 K모 여인과, 서울랜드에서 조그만 매점을 운영하는 B모 여인이 만났다. 누군가 그 두여인에게 요즘 사람들 세상사는 형편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처음엔 어물쩡거리며 머리만 주억거리고 섰던 B모 여인은 무질서 하지만 않다면 세상은 살아볼만한 곳 이라고 말했다. 반면 종로통에서 노점상을 하는 K모 여인은 사람살만한 세상이 못된다고 잘라 말하며 혀를 찼다.

분명 서울랜드의 사시장철 향락객들 틈바구니속에서 매일 매일을 보내는 B여인에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지없이 넉넉하게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최루탄과 화염병이 거리를 휘몰아치는 종로통에서 5월 한달을 보낸 K여인의 눈엔 세상은 곧 뒤집어질 것만 같은, 사람 살만한 시절이 아니라고 느꼈을 것이다.

엇비슷한 처지에서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세상은 판이하게 달라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런지도 모른다.

이렇듯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란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달라져 보인다. 게다가 세상사는 모양새가 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한, 때로 그 상황이나 현상은 무감각해져 보이게 된다. 그 시대 상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각질화되어 굳어진 이성 탓이리라.

지금 혼돈과 암울이 우리들의 이성을 극도로 피폐시켰던 5월이 막바지로 접어 들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끊임없는 국민의 열기와, 분신이라는 극단적 항거의 표현까지도 덤덤하게 바라보는 그들의 낙천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가.

아마도 통치권의 눈으로 본 세상은, 이 혼란한 5월은 분명 태평성대로만 보였음이 분명하다. 생각컨데 무감각의 심각한 중증현상에 사로잡힌 이들은 통치권이 아닌가 한다.

지난 한 주 노대통령이 그간 절대다수의 요구에 밀려 내각 개편을 한다더니 그결론이 내려졌다. 더이상 무감각해 질수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자신을 인식한 때문일까.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총리 인선의 결과란게 절치부심의 흔적은 고사하고 그저 위기 모면책에 급급한 인상만이 역력하다.

정계의 인물난이 어떠니 영호남 인사의 배제니 선제약을 운운 할때부터 그 진위가 예상되더니 그 결과가 자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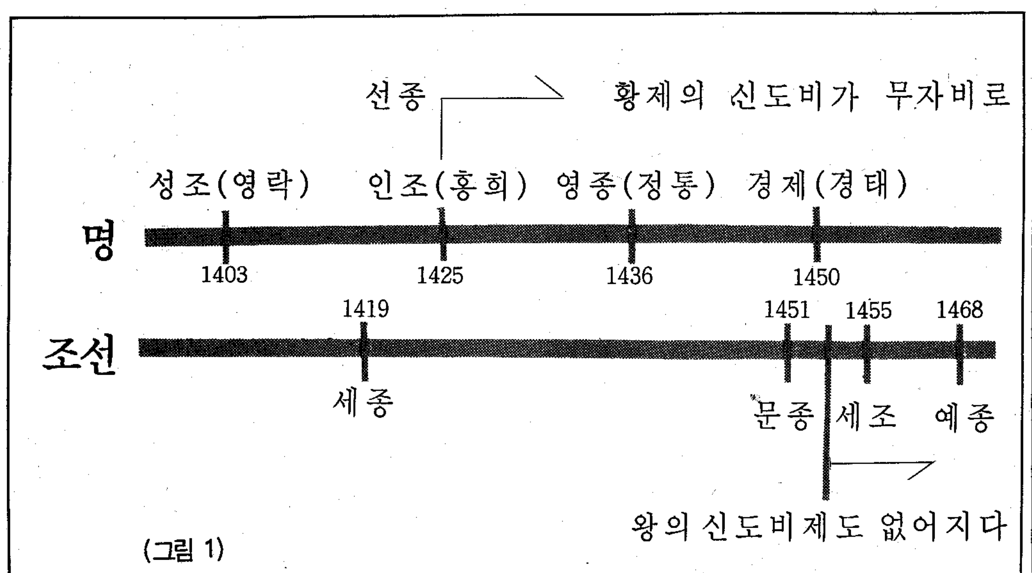
신임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된 정원식 전 문교부장관의 이력을 새삼 거론 한다는 사실은 별의미가 없다. 90년도 전교조탄압에 강공으로 대처했던 그가 우리의 의식에서 사라졌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야권과 비정치권에서 이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또한차례의 격량의 파고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끝끝내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채 강경을 고집하는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무감각도 아주 단단한 껍데기에 둘러 싸여있는 것이 분명하다.

암울하기만 했던 5월의 막바지에 비가흩뿌려지고 있다. 두달이나 지속된 가뭄에 신이 대지에 내리는 혜택이리라. 하지만 정치권의 단단한 벽을 무너뜨려 버릴 진정 필요한 민주화의 단비는 요원하기만 하다.

정치권이 바라듯이 이빗속에 5월의 열기마저 과거 속으로 스며들어 버릴까 염려스럴 뿐이다. 하지만 과거는 문밖으로 내쫓기면 창문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 분명 새겨 들어야 할 지론임에 틀림없다.

〈洪〉



(그림 1)